

일최고기온이 나타나는 시각의 지역적 차이

신유미* · 류찬수
(조선대학교 대학원 지구과학과)

우리나라에서 일최고기온이 나타나는 시각은 전 지역 평균 오후 2시 정도이다. 이는 대기의 가열이 일사에 의해 직접 나타나는 것보다 지표면이 일사에 의해 가열된 후 대기는 지표면 복사(장파복사)에 의해 가열되는 비율이 현저하게 커서 지표면이 가열되는 지연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.

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일최고기온이 오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. 이는 당일의 기상을 고려한다 하여도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났다.

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그 원인을 해석하고자 하였다.

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우리나라 전 기상관측소의 1년간(2001년) 기온, 강수, 바람, 습도 및 기타 기상현상의 자료로 자기기록된 자료와 일 및 시간별 자료를 사용하였다.

분석결과 ‘일최고기온이 나타나는 시각은 해양성기후지역이 내륙지역보다 늦다’는 일반적 이론과는 달리 해륙풍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일부 해안지역의 경우 오전에도 일최고기온이 출현하며, 기타 한기의 장출 등 기단의 분포나 이동 등에도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.

이 결과는 교육현장에서 일반적 개념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내용으로 판단된다.